

[ 건강·의료 ]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검사결과 즉시 확인”

화순 전남대병원, POCT 구축

화순 전남대병원이 IT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검사 실시간 확인 전산 체계를 구축, 명실상부 한 디지털병원으로 면모를 새롭게 갖췄다.

26일 화순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의료진이 환자 곁에서 직접 혈당검사와 혈액가스, 전해질 검사 등을 한 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POCT(현장현시검사·Point Of Care Testing)’ 전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실과 응급실, 수술장,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검사가 실시되는 즉시 전산 네트워크에 의해 결과가 자동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에 전송돼 신속한 환자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화순 전남대병원의 ‘POCT’ 전산 네트워크 구축은 국내병원으로는 두 번째이자 지방 병원으로는 처음이다.

현장검사위원회 위원장인 법회승 교수는 “검사시간 단축과 신속한 결과 확인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의료진 또한 검사 후 실시간 결과 확인으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POCT(현장현시검사·Point Of Care Testing)’ 전산 네트워크를 통해 POCT 검사를 한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광주희망병원 개원

북구 용두동에 300병상 규모

광주시 북구 용두동에 300 병상 규모의 광주희망병원이 지난 26일 개원하고 진료 를 시작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 통증의학과 등 8개 과다.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이 병원은 급성기 질환과 만성기 질환에 특화된 전문치료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물 3층에 250평 규모의 공간에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기능적 작업 치료실 ▲소아 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이 마련된 특수재활치료실이 마련돼 있으며, 재활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총 120 병상의 재활병동도 운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혈압 환자의 ‘두통’

■증상과 치료

아침에 뒷머리 지끈? 위험 신호

두통은 일상생활 중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가벼운 증상 중 하나다. 하지만 심한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에게 두통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반복적인 두통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혈압 환자에게 찾아오는 심한 혈압 상승 뒤 두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래로 21 병원 신경외과 정인호 원장을 통해 고혈압 환자들에게 찾아오는 두통의 특징과 치료에 대해 알아 본다.

◇두통의 원인=두개골 바깥쪽에서 생기는 편두통·긴장성 두통이 대표적이며 눈, 코, 귀의 염증이나 파과에 따라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두통의 약 90% 이상이 이것에 해당한다. 두개골 안쪽에 생기는 두통은 발열·속취·심한 혈압상승·수막염·종양·뇌출혈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두통의 특징=TV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혈압 환자에서 두통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혈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에 비해 고혈압 환자에게서 두통은 보다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한 뇌경색이나 뇌출혈과의 연관성을 걱정하게 된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지속적인 혈압의 상승을 방치할 경우 뇌경색·뇌출혈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고혈압 환자라도 두통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대부분 두개골 바깥쪽에서 생기는 편두통·긴장성 두통이며 치료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고혈압 환자에게 또 다시 발견되는 두통의 양상은 일부 고혈압 약에 의해 발생하는 약제성 두통으로 고혈압 약을 먹은 뒤 1시간 정도 후부터 아프고 5~6시간가량 지난 뒤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해 고혈압 약을 변경하게 되면 두통 또한 사라지게 된다.

혈압의 상승으로 인해 나타나는 두통은 두 개강 내 혈류량 증가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해 만성적인 두통을 일으키게 된다. 혈압의 상승에 따라 뇌 혈류량이 상승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뇌부종이 진행돼 만성적인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진행된 환자에서는 두통이 있을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 나면 뒷머리가 ‘터지는 듯’ 아프며 활동을 하거나 혈압이 정상화되면 없어지는 특징이 있다.



미래로21병원 신경외과 정인호 원장(사진 우측)이 병원을 찾은 고혈압 환자의 두통 치료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미래로21병원 제공>

혈압 오르면 혈류량 증가 만성두통 유발 방치땀 뇌경색·뇌출혈 일으킬 수도 혈압약 챙겨먹고 스트레스·과로 피해야

일단 이러한 형태의 두통이 발생한 경우라면 혈압 조절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증상 호전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지 않거나, 스트레스·과로·감정적 문제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

고혈압을 동반한 두통은 다른 두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환경과 감정 상태가 두통 발생에 특히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혼란해 지면 이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과상하게 되고, 과상승된 혈압으로 인해 두 개강 내 혈류량이 과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2차적인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돼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또는 갑자기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두통을 호소하게 되며, 오심, 구토, 의식 소실이 동반될 수 있다.

이렇듯 급격한 뇌 혈류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을 급성 고혈압성 뇌증이라고 하며,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진행하게 되면 뇌경색·뇌출혈을 일으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무서운 결과를 부르는 급성 고혈압성 뇌증은 절대적인 혈압수치, 즉 얼마나 혈압이

높은가 보다는 얼마나 가파르게 혈압이 상승하느냐에 따라 증상의 정도를 결정되게 된다.

평소 안정된 혈압을 보이던 환자라도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했을 때 극심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적극적인 치료가 지연될 경우 의식 혼탁까지 발생하게 된다.

◇치료방법=급성 고혈압성 뇌증을 보이는 환자는 무엇보다도 혈압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의사들은 수축기 혈압은 185 미만, 이완기 혈압은 110 미만까지 혈압을 낮출 것을 추천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가 평소엔 두통이 있다면 장기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한 두통 여부를 반드시 감별해야 한다.

만약 두통의 정도 및 발생 빈도가 심해지거나, 두통의 양상이 변화하면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갑자기 머리가 터지는 듯한 또는 갑자기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두통을 호소하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원인 치료를 해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움말=미래로21병원 신경외과 정인호 원장>

기온 0.5℃ 오르면 전염병 10% 증가

순천향대 의대 연구팀

기온 상승이 전염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순천향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윤형 교수팀에 의해,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전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26일 이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월평균 기온 0.5도 올라간다는 시나리오 아래 다른 기상요소들의 값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쯔쯔가무시증·말라리아·세균성 이질·신증후군출혈열·렙토스피라증 등은 각각 9%, 2%, 3%, 10%, 10%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는 분석대상 질병의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개인별로 정

리(1998년 1월~2005년 10월)하고 각 질병별 발생건수를 지역별, 연도별로 기상 변수 및 대기오염 변수와 비교해 상관관계를 살펴 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기상정보와 마찬가지로 질병정보는 확률적 추정치에 근거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질병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팀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내다보고 있는 만큼, 기상 변화에 따른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잠재적 위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社告

제14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내일 오후2시 전남대병원5동1층강당 문은선 교수 ‘손 저림증 원인 및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28일 ‘제 14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사무직과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50~60대 여성에서 발생하는 ‘손 저림증’을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문은선 교수로 손저림증의 정의, 발생원인, 증상,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해 줄 것입니다. 강좌의 내용은 오는 4월3일(화요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손 저림증
강 사 : 문은선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수부외과전문의
-대한수부외과학회 학술이사
-부산시대학수부병원연수
-스위스AO(골절치료연구회) 기초 및
Advanced 과정 수료
-대한건주관절학회장 역임

- 일 시 : 3월 28일(수)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featuring various film titles and a '영화안내' section.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향수' and '수'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En Cinema listing movies like '일루서니스트' and '수'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브레이크업:이별후애' and '수'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Mung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스폰다' and '수' with showtimes and prices.